십자가를 통해 보는 계시록의 윤곽

(계1:4~8)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보는 계시록의 윤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계시록 내용의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포착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개관한다는 얘기에요, 윤곽을 잡는다는 얘기가 개관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계시록 윤곽!

여러분,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동해물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있었겠지요, 백두산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장구한 세월을 있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므로 이 동해물과 백두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현재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있고 지금도 제가 여기서 뛰어나가면 한 20분 만에 바다에 도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바다에 동해물이 있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하여간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당분간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있는 기간이 오래 되어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이게 좀 특별합니다.
4복음서와 사도행전 빼놓고 로마서부터는 성경이 다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마다 서두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두부분에서 모든 문안 인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형태를 바꾸면서 언급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의 내용들을 계시 받고, 그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일곱 교회에 보내는데, 그 편지의 서두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서두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이제까지 서신들 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장차 오실 이시라는 것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내가 미래를 향해 간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온다고 표현을 한 거지요.
온다고 하는 그런 느낌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미래가 현재로 오고 있는 거니까 .
그래서 결국 지금과 과거와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백두산에게도, 동해물에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지금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동해물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이 표현과, 백두산이 그렇다는 것과 다른 점이 뭡니까? 표현은 똑같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다른 점이 뭡니까?
백두산과 동해물은 아무리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무리 오랜 뒤까지 미래까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치가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지라도, 만년 이만 년 뒤에 주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존속하는 이 기간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지라도, 결국은 억 년이 돼도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동시에 공간 속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백두산과 똑같이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계심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 밖에 계신다는 뜻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시간을 타지 않으세요, 세월을 타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월을 타지 않는 분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차원의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이제까지의 로마서부터 쭉 계속되는 서신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문안 인사, 그나마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2,3서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편지라는 형식으로 담아서 일곱 교회에 보낼 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이게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사도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요한사도의 의도가 들어 있는 건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자기가 받고 이해하고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주님의 명령이 그런 것이고, 그걸 보낼 때에는 계시록의 내용과 교회가 어떤 식으로 매치된다는 걸 본인이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계시록 속에, 그 내용 속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지만 공감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개관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윤곽 안에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백두산도 우리가 좀 그 의인화해서 얘기하면 백두산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계시기는 계시는데 백두산은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이 계시의 내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어디로 보냅니까? 교회로 보냅니다, 교회로 보낸다는 것은 교회가 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 단체라는 얘기에요.
교회가 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찾아 들어가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의 개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이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윤곽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
교회 아닌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 교회에 속한 사람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 다른 점을 알려면 같은 점이 있어야 되지요, 같은 점이 있을 때 다른 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에 속한 사람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같은 점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육체의 5감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점은 뭡니까?
반응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갈 때, 시간과 공간 안에서 5감각으로 주어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형식이 다른 겁니다.
크게 말해서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의 5감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육체를 통해 접수가 되면 자기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인격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육체를 통해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스스로 판단하고 이건 개선돼야 될 것이다, 이건 보전돼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반응해 나가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건 똑같지마는, 5감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을 느끼고 만나고 접촉하게 되는 것도 같지만, 그 일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마음이 기억해야 될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인 자들입니다, 내가 죽게 된 일보다.

예를 들어 사도바울이 재판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되거나 살게 되거나하는 생사여탈 문제가 결정되는 그 순간인데도,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 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내 생사보다 더 앞서서 기억되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먼저 기억하는 자들이 바로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거나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 주님이 죽은 거지만 바로 내가 죽은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마음이 빠져나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빠져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허허로운 공의 세계로 마음이 빠져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죽으심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빠져나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어디로 갔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셨어요.
그 하늘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 바깥에 있는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게 오늘 일곱 영이 보좌 앞에 있다는 4절의 말씀처럼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제일 먼저 기억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건보다 더 급박하게 내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없으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됨으로써 주님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빠져나가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 바깥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간 자들은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곱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받아서 이 땅에서 육체로 움직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요.
이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러한 내용과 요한계시록과 모종의 관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인가를 알면, 그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떠받치고 있고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에게 전해서 교회에게 주는, 이처럼 몇 다리를 거쳐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록을 주시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교회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된 걸까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직접 경험한 어쩌면 마지막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00세니까, 다른 여타의 사람들이 있다할지라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사도요한이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사도요한이 죽고 나면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층 내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고, 교회는 이제 온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 목격한다는 의미에서 육체와 육체로 직접 경험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관련성이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황인데, 외부적인 상황은 어떠냐?
도미티야누스 황제가 교회 박해를 로마제국 전체를 정책적으로 실시해 가면서 교회를 탄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인들이, 앞에서 우리가 서신서에서 계속 읽어오면서 느꼈듯이,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배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끔찍하게 사자 밥이 되고 화형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내 이웃과 가족들이 그렇게 죽음 위협에 있으면서, 과연 내가 교인으로써 이 십자가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가 말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긴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 두려움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빠져나가서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 세계에 대한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순교가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순교의 의미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시간과 공간 바깥 세계를 시간과 공간의 세계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순교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시간과 공간 바깥의 세계에 두어야 되는데, 그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느끼는 바도 없습

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불확실하면 밖에서 박해가 들어오고 이런 환란이 닥칠 때, 마음을 그곳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불확실 하니까, 이 고통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성경 속에 포함되게 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의도입니다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시간과 공간 바깥의 세계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에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갈 것이니까.
근데 마음을 그쪽으로 드려버리면, 뜻과 힘도 따라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에 대한 확실한 마음의 확증이 없으면,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련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순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교를 허락하시고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최고조로 고양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가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하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이, 대적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예수님께서 구름타고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를 찌른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을 진짜로 창으로 찌른, 그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그럴 때,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내 개인적인 사건인 것 같은 이 사건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우주적 차원에서 공중이라는 그 차원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커튼에 갇혀서 그래요, 그게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을 열어 젖혀버리는 겁니다.
요한에게 시간과 공간을 젖혀버리면서 요한사도 자신은 사실 계시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온전하신 믿음을 갖고 사셨던 분이시니까.
사도바울과 사도베드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에 대한 의심이 생겨납니다.
환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돈 문제가 급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실감나게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늘나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위에 계시고 하늘나라가 존재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시간과 공간의 커튼으로 우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요한에게 시간과 공간의 커튼을 젖히고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을 시간과 공간의 이 세계에 대해서 죽고,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사건이, 그냥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사는 사건이고 나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나 한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주적 차원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에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서, 마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도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우주적 차원에서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과 커튼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열어젖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기억하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마귀의 세상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나비효과로 난리법석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가를 커튼을 열어젖히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도미티아누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돈 문제 무슨 건강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다 뺏기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마음이 묶여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할 때에 그냥 내가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승리를 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무효화되는 사건이면서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진짜 세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상실되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차원과 차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실제 생활 속에서 생활해 나갈 때, 차원과 차원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의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세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 7절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본다고 그래요.
각 사람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찌르고 한 지가 지금 60년이 지난 때 아닙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때가.
근데 60년 전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월드컵 할 때 브라질에서 월드컵 하는 축구를 보려면 새벽 3시 4시 5시 이렇게 봐야 됐어요, 그들은 밤중에 하는 축구시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브라질 사람과 우리가 각 사람의 눈으로, 방송을 통해서 동시에 보는 게 아니고 위성방송을 통해서 동시에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간의 세계가 찢어져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의 세계가 찢어져 없어지면서 참 세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왜 시간과 공간의 가짜 세계, 일시적인 세계, 임시적인 세계에 가둬두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서 시간과 공간이 젖혀져 가지고 하늘나라 보좌가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늘나라의 좋음에 다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가려져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배려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젖히고 우리 스스로가 진짜 하늘나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지

마는, 사도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세계가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사도요한이, 이 시간과 공간의 언어로 묘사를 하게 만드십니다.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바깥의 진짜 세계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한 그것을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마는,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시간과 공간의 세계의 논리로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가 나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요지가 뭡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직장에서 마음을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약이 작용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만져지는 일들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음을 먼저 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커튼을 젖혀두고 요한사도에게 그 세계를 보여줘서, 그 세계의 리얼리티 참됨을 실제함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줌으로써,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란을 뛰어넘어서, 모든 감각적인 강렬함을 뛰어넘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세계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으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늘 우리 마음속에 시간과 공간의 커튼을 젖혀놓고, 하늘의 빛을 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